

## 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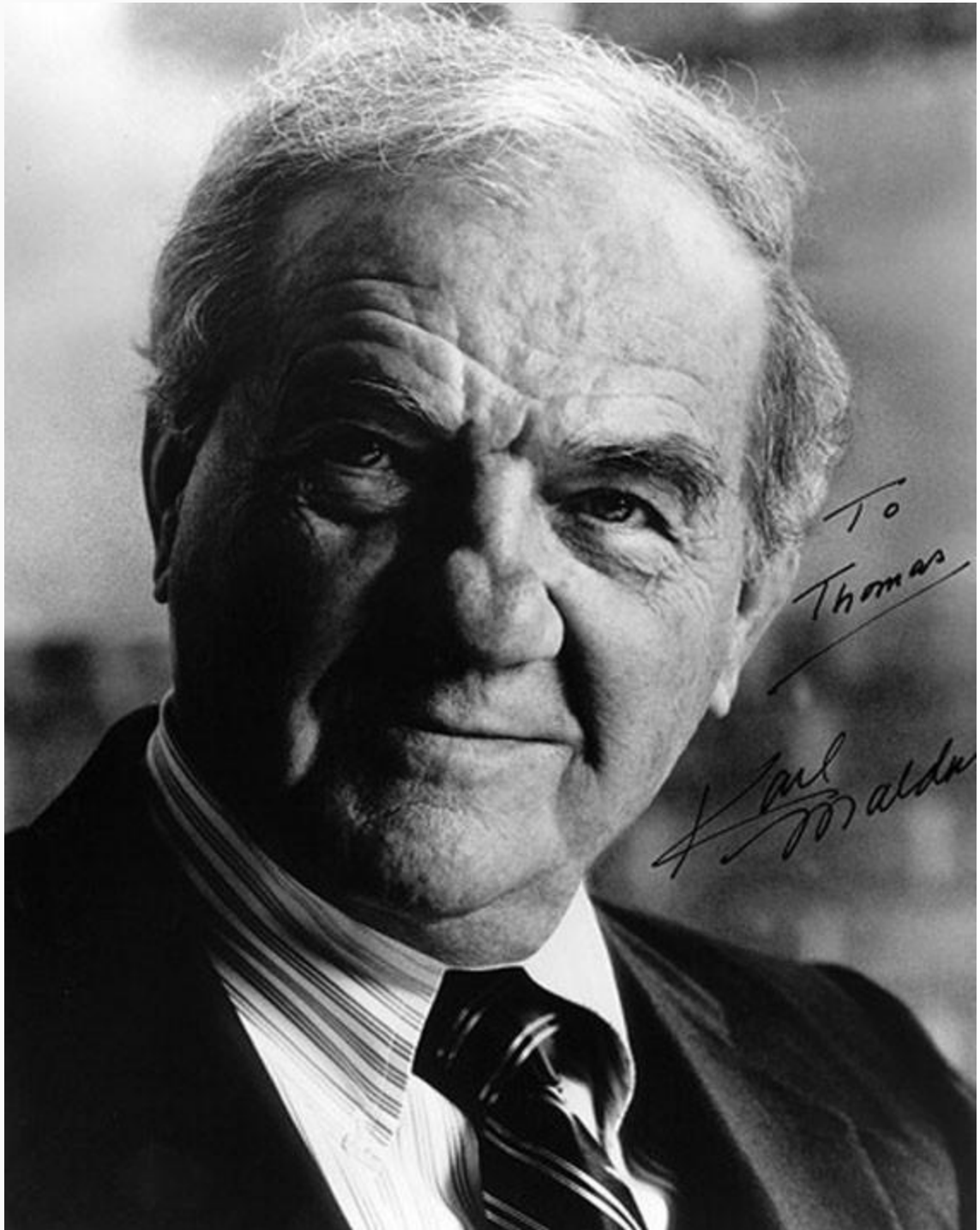
나는 사람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코부터 먼저 본다.  
우선 잘생긴 코와 못생긴 코부터 분류한 다음, 높은가 낮은가,  
두툼한가 뾰족한가에서 코 끄트머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순식간에 파악한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코는 잘 생겼다.  
왜냐하면 내 코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코는 잘 생겨 보인다.  
**장동건**이나 **이세창**이네 들의 코는 비교대상이 안 된다.  
그들의 코는 예술이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더구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코는 가히 기념비적이다.  
그녀의 코앞에 서면 나는 끝없이 작아진다.



비교적 키가 작은 **더스틴 호프만**도 코는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으로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칼 말덴의 코를 보고서는 나는 일종의 위안을 받았다.  
주먹코와 딸기코는 같은 과가 아니겠느냐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서였다.  
그렇지만 칼 말덴의 주먹코 역시 콧대는 힘준하게 솟아있었다.  
내 코처럼 콧대가 함몰되지는 않았었다.  
내 경우는 콧대는 아예 형성되지도 않은 데에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심하게 꺼져버렸다.

덕분에 두툼한 콧날개는 유난히도 딸기를 연상시킨다.  
외조부의 코를 닮은 모친의 코를 그대로 이어받은 탓이었다.

현대사를 지배한 백인들이  
<코쟁이>로 불리는 사실조차 나에게는 깊은 상처였다.  
인종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백인들의 코가 높은 것은  
유달리 코가 낮은 나에게는 의미심장한 현상이었다.



영화 <디아르 바키르의 아이들>의 가난한 일상 속에서도  
등장하는 아이들의 외모는 눈부셨다.  
중근동 지방은 지금의 서유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찬란한 문명을 오랫동안 누렸고 그 흔적이 세련된 외모로 남았다.

어린 날의 열등감은 코에서 비롯되었고  
내 사춘기의 열병은 콧대에서 시작하여 콧대로 끝이 났다.  
나만큼이나 납작코였던 중학 동기생 녀석이  
대학시절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콧대가 갑자기 우뚝 솟은 사연을  
깡패한테 코를 쥐어 박혀서 다친 뒤끝이라고 해명을 하였건만  
지금까지도 석연찮은 해명이라고 기억하는 까닭은  
진작에 나도 성형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기억을 내내 재생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의협심이 풍부한 깡패를 만나 코뼈가 부러지면  
덕분에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결들일 수 있겠건만  
원망스럽게도 깡패들은 내 코에 손도 대지 않았다.



집사람을 처음 본 순간 물론 나는 코부터 살펴보았다.  
세상에서 이 이상 더 뽕족한 코는 없겠다고 판단한 나는  
곧 바로 청혼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다.

첫 애가 제법 자랄 때까지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더구나 딸아이라 만에 하나 내 코를 닮는다면  
그 후유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제 엄마 코 형상과 비슷하다 싶을 무렵 둘째 아이를 가졌다.  
둘째 역시 내 코를 비껴갔다.  
시골의 부모님과 주변의 친지들은 딸만 둘인 우리 부부에게  
셋째를 갖기를 끈질기게 권유해 왔으나 나는 요지부동이었다.  
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통코와 딸기코의 문제였다.  
아들이건 딸이건 셋째라고 딸기코가 되지 말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혼자 살겠다가 입버릇이던 딸아이가 웬일인지  
대학 동아리서 만난 녀석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둘러 양가 부모끼리 상견례를 가졌다.  
바깥사돈의 코도 반듯하고 안사돈도 콧날이 오뎝하였다.  
예비사위 역시 나무랄 데 없는 콧대와 콧날이어서  
혼사는 성공적일 것이라고 당시에는 마음을 놓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설부른 지레 짐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즈음 따라 부쩍 심해지고 있다.  
작년 2월에 태어난 외손녀의 코가 납작한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중이다.  
아직 유아기라 앞날의 코 모양이 어떻게 진화될지는 모르지만  
1/4의 생물학적 지분을 물려준 나의 입장은 매우 착잡하다.■

2010 흐르는 강물처럼

(이미지는 네이버에서)